第 68回
10月14日, 成功

○… 우리 協會는 지난 10月 …○
○…14日 協會硏究室에서 第68 …○
○…回 發明敎室을 開催했다.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 …○
○…時에 開催되는 發明敎室은 …○
○…이달에도 2백여명이 參席하 …○
○…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
○…發明敎室에서는 (株)錦山金 …○

自動경첩 發明人

(株)錦山金屬 孫 鍾在 사장

(株)錦山金屬 孫 鍾在 사장은 자신의 發明品인 自動경첩을 기업화하여 성공한 發明企業人이다.

이 自動경첩은 國立工業試驗院 30萬回機能테스트에도 합격, 수요자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았으며, 86年 西獨國際發明展 銀賞 수상과 함께 世界的인 發明商品으로 인정되었다.

孫사장이 自動경첩을 發明한 것은 건설회사에 상무로 있을 때였다.

근무중 유압도아 크로저가 고장이 잦고 아무 곳이나 사용할 수 없다는데 착안하여 發明하게 된 것이다.

孫사장은 自動경첩 發明과 함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株)錦山金屬을 82年 7月 15日에 설립하였으나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여 판매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점이 있었다.

또한, 주위의 사업반대가 극심하여 더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과 경영방침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實用新案第27755號 등 7件의 工業所有權으로 무장, 國內市場은 물론 海外市場의 길도 열렸다.

지난 82年 및 84年 서울國際무역박람회 出品 展示가 계기가 되어 수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편, UN 동남아시아 지원자금으로 전시회를 갖기도했으며, 우수 特許品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孫사장이 發明한 自動경첩은 스프링의 힘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고 PVC턱으로 90°, 135°, 180°에서 문을 정지하게 하며, 브레이크 오일로 문이 천천히 닫히게 하여 경첩·도아책·제동받힘의 3가지 역할을 한다.

『처음엔 문의 중량과 스프링의 크기를 고려하지 못해 고생좀 했습니다. 그러나, 곧 보완하여 다시 선보일 수 있었지요.』

이제 孫사장의 제품은 올림픽 기자촌 및 선수촌·아파트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美國·日本·싱가폴·인도·이스라엘 등에 수출과 함께 상담도 활발하게 추진 되고 있다.〈♣〉